

한국사

생태학적 관점의 역사연구 확산

이기동

동국대 교수·사학

최근 학계 동향을 토대로 새해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역사시대쪽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또 지역사회의 존재형태에 대한 밀도 높은 연구, 식민지 근대화 문제의 심층적 연구, 해방 이후 현대사에 대한 반성 등이 책으로 결실을 맺기 바란다.

통상 자료집을 상대로 씨름을 하며 사실의 적발과 고증 및 비판에 온갖 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한국사학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한 해도 예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한국에서 시민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가 창설된지 1백주년이 되는 기념할 만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 조용히 지나갔다.

하기야 한국사학계가 세기말의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하여 마냥 초연했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경제사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39회 전국역사학대회는 공동 주제를 ‘한국사 시대구분론’으로 정하고 최근 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논점들을 총검점하려고 했다.

주지하듯이 시대구분은 역사연구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결승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의 시대구분 논쟁에서는 학계의 다양한 견해 차이를 확인했을 뿐 어떤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또한 종래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지던 고대·중세·근대라는 시대구분상의 3분법에 대한 반성도 제기되었으나 그 반응은 냉담했고, 한편 대안제시에도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의 학계 동향을 토대로 하여 새해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선사시대 분야에서 일고 있는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역사시대 쪽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장구한 선사시대 인류 생활상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고고학 쪽에서는 세계 학계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이미 수년 전부터 종래의 기술 일변도적 관점에서 벗어나 차츰 생태학적 관심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그리

하여 이제는 유적과 환경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자신들의 주된 임무인양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계의 움직임에 견주어 볼 때 역사학계의 자세는 너무나 미미한 실정인데, 어쨌든 그 같은 방향으로의 접근은 이제 한국사학 쪽에서도 회피할 수 없는 추세가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삼국-고려-조선시대를 통해서 학계 공통의 관심이 근래 종전의 국가권력에서 차츰 지역사회의 존재형태로 바뀐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작금의 정치현실과 결부시켜 볼 때 흥미있는 현상인데, 그간 학계에서는 백제의 지방 통치체제라든가 신라의 촌주(村主)제도, 고려의 부곡(部曲)제도, 조선의 향촌사회(鄕村社會)에 대해 밀도 높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새해에도 그간의 업적을 결산한 연구서가 계속 출간될 전망이다.

지난해 근대사 부문에서 큰 논쟁을 제공한 사람은 경제사 전공의 이영훈 교수였다. 그는 조선 후기 사회변화의 주체를 경영형 부농(富農: 광작(廣作)농민)이 아니라 소농(小農)경영에서 찾아야 할 것과 식민지 근대화의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예상한 대로 이에 대한 학계의 반론은 매우 치열했다. 사실 이 논쟁이 함축하고 있는 문제성은 엄청나게 큰 것인 만큼 새해에는 이들 문제를 심층적·포괄적으로 다룬 연구서의 출간이 요망된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수정주의사관(修正主義史觀)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까지의 현대사연구가 붐을 이루었고, 이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하기야 90

년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제히 몰락함에 따라 수정주의사관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되는 추세이고, 또한 종래 학계의 관심이 오로지 해방 후 5년간에 쏠렸던 데 대한 반성의 기운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에 정식으로 발족되는 현대사연구소가 이같은 연구상의 결함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한국사연구에서 반드시 시야에 넣어야 할 것이 외국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다. 일본에서의 한국사 연구전통은 1백년 이상의 긴 내력을 갖고 있으며, 해방 전후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성과가 좋든 싫든간에 우리 학계에 자극을 준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구미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서가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작년 미국의 제임스 팔레 교수가 1천3백여 쪽에 달하는 《유학자의 경륜과 조선의 제도-유형원과 조선후기》를 펴낸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근대성을 부인한 이 책은 우리 학계에 실학논쟁을 재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 스위스 출신의 마르티나 도이힐러 교수는 고려말-조선초기 한국사회의 변화양상을 다각도로 추적한 《한국의 유교화(儒敎化)과정-사회와 이념에 대한 연구》를 간행했다. 그는 이 책에서 효과적인 방법론의 개발 및 새로운 문제의 제기, 문제성의 인식에 주력했다고 피력한 바 있는데, 바로 이같은 자세야말로 한국사의 체계화 작업에서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謹賀新年〉

새해에도 간행물 윤리향상과
건전한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7년 새해 아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 원 장 **權赫昇**
사무총장 **朴龍德**

〈謹賀新年〉

대학학문의 발전과
대학지성의 보루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7년 새해 아침

한국대학출판부협회 회 장 **김용득**
부 회 장 **박현재**
사무국장 **이규일**

〈謹賀新年〉

다시금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새해 아침

한국도서관협회 회 장 **사공철**
부 회 장 **김진무**
부 회 장 **이두영**
사무총장 **조원호**